그대는 자비보살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 & 봉사자 민일영 전 대법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16년째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민일영 전 대법관(사진 왼쪽)과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이 지난 2월,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곧 실천이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밥퍼'로 맺어진 깊은 우정, '나눔'으로 꽃 피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신축 법당에서 첫 무료급식이 시작된 2월 12일, 원경 스님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사진 왼쪽)과 민일영 전 대법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함께 무료급식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배식봉사와 함께 한겨울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방한용품을 기부하는 자비행을 수년 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 12일,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에게 30년간 무료 점심을 제공해 온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새롭게 단장해 활짝 문을 열었다. 허름한 단칸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매일 밥을 '퍼주며' 지내온 지 30년. 이제는 '조계종 원각사'와 '원각사 무료급식소' 간판을 단 어엿한 '자가' 건물이 생겼다. 조선 세조 10년(1464)에 낙성돼 연산군에 의해 폐찰됐던 원각사가 창건 560년, 폐찰 520년만에 새로운 도량이자 무료급식소로 문을 연 것이다.

공간은 지하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 1층은 무료급식소, 2층은 법당, 3층은 사무실 겸 접견실로 꾸며졌다. 새로운 급식소에서 열린 첫 공양 나눔에는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이자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민일영 전 대법관, 봉사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함께 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16년을 함께한 '터줏대감 봉사자'다. 각각 불법(佛法)과 법(法)의 길을 걸어온 원경 스님과 민일영 대법관은 배식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365일 돌아가는 무료급식소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중단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견뎌왔다. 급식소는 건물주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이다. 대량으로 음식을 하다 보니 냄새가 배이고, 벌레가 꼬일 것이라는 인식에 여차하면 길거리로 나 앉기 십상이다.

원경 스님은 "이대로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원력으로 "일념으로 기도해 한 세월 한 세월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보리 스님이 운영하던 무료 급식소가 재정 등 여러 사정으로 문을 닫게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딱 3년만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이다.

"10년 전,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에 왔더니 어르신들이 100m 넘게 줄지어 계셨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드시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죠. 시대의 어르신들은 생면부지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다. 어르신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살려낸 것 같기 때문이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365일 중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운영된다. 설날과 추석도 마찬가지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게 원경 스님의 설명이다. 가정 같은 포근함을 주고자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복날에는 건강식을 준비한다. 메르스·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도시락으로 대처해가며 급식을 이어갔다.

스님은 "34개 봉사팀에서 봉사자 300여 명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중에서도 올해로 16년 째 묵묵히 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귀인'라고 했다.

불교 인연 배식봉사로 잇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학창시절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서울대 법학과 2학년이었던 1975년 겨울,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며 북한산 금선암에 머물렀던 그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을 키웠다. 물이 꽝꽝 얼 정도로 한기 가득했던 방에 머물며 공부에 몰두했다. 몸을 녹이며 하라고 스님이 건넨 한 통의 녹차와 법당에서의 조용한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됐다. 대학교 4학년 마지막 겨울, 도선사에 '방부를 튼' 그는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 판사의 길을 걷게 됐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공정함과 자비를 실천하고자 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품고 있던 그는 법조계 재가불자단체인 서초반야회를 만나면서 봉사의 길에 들어섰다.

"민일영 전 대법관 '터줏대감' 봉사자"
1975년 고시생 시절 불교와 인연돼
판사 재직하며 서초반야회서 활동해
16년동안 원각사 무료급식소서 봉사

"원경 스님, 우리시대 신장 같은 스님"
30년 만에 자기 도량서 무료급식 나눔
34개 봉사팀, 300여 봉사자에 유지돼
"자립 활동 확대한 복합복지공간 계획"

민 전 대법관은 2009년부터 서초반야회의 활동 중 하나인 원각사 무료 배식 봉사에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배식 봉사를 하며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뿐 아니라 직접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중요한 가치임을 몸소 깨달았다. 그의 배식 봉사는 입소문을 탔고 '밥퍼 대법관'이라는 별칭도 따라붙었다. 이후 그는 동료 법조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봉사를 권했다.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에서다. 2015년 공직을 퇴임한 후에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에 재직하면서부터는 동료들과 함께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겨울에는 방한용품을 후원하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은 곧 실천이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은 16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눔과 우정으로 피어난 감동

원경 스님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배식 봉사를 통해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자비와 수행, 법과 실천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배식 봉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사장으로 있는 (사)나눔과이음 동료들, 특히 젊은 동료들에게 배식 봉사를 권하는 이유다. 지난해 가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의 옆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원경 스님은 봉사 때마다 동료들을 대거 이끌고 나타나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우리사회의 신장'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하나 없는 이가 무료급식소 일을 거들어 주니 그만큼 원각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법당에 가면 부처님 옆에 신장님이 계셔서 도량이 유지되듯이 민 전 대법관이야말로 실천불교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신장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배식 봉사날 뿐 아니라 간혹 만나 차담을 나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살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경 스님, 원각사의 미래 열다

원경 스님과 민 전 대법관은 급식 봉사가 단순한 식사 제공만이 아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길 꿈꾼다.

원경 스님의 바람은 원각사의 급식 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무료 급식소 운영을 넘어 노숙인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복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원경 스님은 "원각사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 복지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서원한다"고 말했다.